

2025. 1. 26. 오후 1 시,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다니엘 Daniel 4:28-33

제목: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설교 시간 35 분, 11 쪽: 9~19

(표준새번역) 4:28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ESV) 4:28 All this came upon King Nebuchadnezzar.

4:29 열두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4:29 At the end of twelve months he was walking on the roof of the royal palace of Babylon,

4:30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4:30 and the king answered and said, "Is not this great Babylon, which I have built by my mighty power as a royal residence and for the glory of my majesty?"

4:31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4:31 While the words were still in the king's mouth, there fell a voice from heaven, "O King Nebuchadnezzar, to you it is spoken: The kingdom has departed from you,

4:32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3)일곱 때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32 and you shall be driven from among men, and your dwelling shall b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you shall be made to eat grass like an ox, and seven periods of time shall pass over you, until you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 he will."

4:33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4:33 Immediately the word was fulfilled against Nebuchadnezzar. He was driven from among men and ate grass like an ox, and his body was wet with the dew of heaven till his hair grew as long as eagles' feathers, and his nails were like birds' claws.

메멘토 모리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황금으로 장식된 마차(4 마리의 백마가 끄는)를 타고, 월계수 관을 쓰고, 왕이나 신처럼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수천명의 군중 사이를 지나게 해 줍니다. 그 마차 뒤로 전장에서 빼앗아 온 금, 보석, 예술품이 가득한 수레를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정복한 지역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군중들이 장군의 이름을 외치며 박수를 치며 꽃잎을 뿌려 줍니다.

그때 장군의 마차 한쪽 구석에는 노예 하나가 같이 타고, 군중들은 보이지 않게 쭈그리고 앉아서 개선 장군에게 이렇게 계속 소리 지릅니다.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함성, 나팔, 박수 소리를 뚫고 개선 장군의 귀에 들리게 계속 소리 지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라틴어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즉

“장군이시여, 지금 이 영광과 함성이 당신을 신처럼 왕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그 영광의 순간, 그 최고의 성공을 맛보는 순간,
 ‘죽음을 기억하라는 노예의 목소리는 장군이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교만

교만은 문자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내세우고), 남을 깔보는 태도로 설명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면을 들여다봅니다.

✓ 교만의 특성(본질): 하나님처럼

교만의 본질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 자신을 높이다: 하나님처럼

교만의 아버지 사탄의 생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4:12 **웬일이나,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짝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Isaiah 14:12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O Day Star, son of Dawn! How you are cut down to the ground, you who laid the nations low!"

14:13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잡고 앉겠다.'

14:13 You said in your heart, 'I will ascend to heaven;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set my throne on high; I will sit on the mount of assembly in the far reaches of the north;

14:14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14:14 I will asc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교만은 내가 그들 위에 있다는 우월감으로 표현됩니다. 본문 4:30 에는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과시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전형적인 교만의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4:30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4:30 and the king answered and said, "Is not this great Babylon, which I have built by my mighty power as a royal residence and for the glory of my majesty?"

교만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눅 18:9,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9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Luke 18:9 He also told this parable to some who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and treated others with contempt:

11 절, 교만한 바리새인은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내용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무능한 ‘이 세리’와 자기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18:11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18:11 The Pharisee, standing by himself, prayed[a] thus: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 extortion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그러면서 12 절, 자기의 의로움을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 드러냅니다. 그렇게 내세우는 근거가 금식 몇번 더 한것과 헌금 조금 더 한 것입니다.

18: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8:12 I fast twice a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get.'

자기를 높여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만은 양과 부피(quantity)의 차이일 뿐, 질(quality)은 똑같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며 또한, 교만은

◆ 하나님을 없이 ‘내가 하리라’(하나님을 떠난 자율성)

본문 4:30, 느부갓네살은 이 거대하고 멋지고 엄청난 일을 ‘내가 해 냈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새번역) 다니엘 4:30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ESV) Daniel 4:30 and the king answered and said, "Is not this great Babylon, which I have built by my mighty power as a royal residence and for the glory of my majesty?"

그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라 여깁니다. 심지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들으며,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었고, 교만하면 어떤 징계를 받을 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Genesis 3:4 But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You will not surely die.

3: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3:5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이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처럼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교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 교만의 열매: 관계의 파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려는 ‘교만’의 열매는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교만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고, 교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헛소리를 쏟아냅니다.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은 나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매력없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진정으로 돕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와 나를 같은 공간에 두고 싶지 않고, 분리시켜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괜찮은 자리에. 교만은 그렇게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교만은 옆 사람과의 관계만 깨는 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 됩니다

선악과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 처럼, 교만은 ‘하나님 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독립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은 ‘죄’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즉 죄와 교만은 같은 내용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 4:6,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밖에 없으십니다.

(표준새번역) 야고보서 4: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ESV) James 4:6 But he gives more grace. Therefore it says,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7 Submit yourselves therefore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 교훈도 책망도 훈계도 안 들을 뿐 아니라,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I shall not want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이루어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불신앙'이라고 불러왔지만,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경 안 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와 말씀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첫번째 대답은

✓ 징계와 심판

교만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31 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빼앗으시고,

4:31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4:31 While the words were still in the king's mouth, there fell a voice from heaven, "O King Nebuchadnezzar, to you it is spoken: The kingdom has departed from you,

32 절, 그를 낮추고 낮추셔서 7 년간 들짐승과 같이

만드셔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십니다.

4:32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32 and you shall be driven from among men, and your dwelling shall b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you shall be made to eat grass like an ox, and seven periods of time shall pass over you, until you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 he will."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은 33 절, 짐승처럼

들판에서 지내게 되고, 왕권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만큼 명철했던 그의 지성과 능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4:33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4:33 Immediately the word was fulfilled against Nebuchadnezzar. He was driven from among men and ate grass like an ox, and his body was wet with the dew of heaven till his hair grew as long as eagles' feathers, and his nails were like birds' claws.

잠언 6:16 이하,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몇가지 중 교만이 그 첫번째입니다. 교만은 심판 받을 첫번째 대상입니다.

(표준새번역) 잠언 6:16~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ESV) Proverbs 6:16~16 There are six things that the Lord hates, seven that are an abomination to him: haughty eyes, a lying tongue, and hands that shed innocent blood,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교만이 아니라, 경외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 경외과 사랑

32 절, 느부갓네살이 징계를 받고 벌 받은 이유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앙은 교만을 거부합니다. 신앙은 우리 속에서 교만을 얼마나 밀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4:32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32 and you shall be driven from among men, and your dwelling shall b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you shall be made to eat grass like an ox, and seven periods of time shall pass over you, until you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 he will.”

또한 교만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교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할 때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을 만들어 내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교만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마무리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태도이므로, 교만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거스틴(St. Augustine)은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며,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도 ‘교만’을 모든 죄의 여왕’이라고 불렀고, 단테(Dante Alighieri)의 ‘신곡’에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간다고 묘사됩니다.

존 칼빈(John Calvin)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 불렀고, C.S. 루이스(C.S. Lewis)는 모든 악의 근본적인 죄이며,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신앙의 편에 서십시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관계를 파괴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에 자꾸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읽으시고, 곱씹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표준새번역) 고린도전서 4:7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내 속에 있는(나도 모르는) 나의 교만을 꺾어 내 마음에는
경외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만 있게 하소서
-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나의 교만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